

건협, 창립 30주년

##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30년 일관

기념식, 심포지움 등 개최



건협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임한중 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지난 11월 7일 기념식 및 국제 학술 심포지움을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주경식 보사부 차관 박상천 국회보사위원장, 한상태 WHO 서태평양지구 사무처장, 요꼬가와 무네오 일본기생충예방회 이사장 등을 비롯해 협회 직원, 학계·보사부 관계관 등 300여명이 참석해 건협의 창립 30주년을 축하해 주었다.

임한중 건협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

해, 『건협은 앞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쌓아온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국민들이 올바른 보건의식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보건교육 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하여 복지사회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목 보사부장관의 치사를 대독한 주경식 차관은, 창립 이래 보건교육, 건강관리사업 등을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 해 온 건협의 공로를 치하하며,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보건예방사업과 국제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박상천 위원장, 한상태 WHO 사무처장, 요꼬가와 무네오 이사장 등이 축사를 하여 한층 자리를 빛내 주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30년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협회사업에 공이 큰 국내의 인사, 협회직원, 유관인사 등에 대한 유공자 표창도 있었으며, 기념식을 마친 후에는 30년간의 기생충, 건강 관리 사업을 정리해 보면서 연구실적을 발표하는 국제 학술 심포지움이 있었다.

## 국내외 기생충, 건강관리 현황 보고·토의

지난 11월 7일 건협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이어 있었던 국제 학술 심포지움에서는, WHO의 세계기생충관리 방침, 일본 예방의학운동의 역사 등에 대한 특별강연과 국내외 기생충관리·건강검사 현황 등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있었다.

이번 심포지움은 국내의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건강관리사업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강연(좌장 : 한상태 WHO 서태평양지구 사무처장)

1. WHO 기생충 질환 관리방침(Dr. K. E. Mott, WHO)
2. 일본에서의 예방의학 운동(Dr. Y. Sugawa, 일본예방의학사업중앙회이사장)

◎심포지움 I(좌장 : 임한중 회장)

1. 과거 20년간 한국의 장내기생충 감

건협 창립 3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축전과 화환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전)

강우혁(국회의원)/소진탁(원광대 교수)/오대규(소록도 병원장)/임무룡(강원도 보사환경국장)/이종주(대구시 부시장)/장재성(전 건협 사무국장)/탁병오(서울시 보사환경국장)

건협, 30년 총 결산, 국제학술 심포지움

염추이(조승렬 중앙의대 교수)

2. 한국의 성공적인 회충관리(이순형 서울의대 교수)

3. 중국의 기생충관리 상황 및 전망(Dr. Yu Sen Hai, WHO)

4. 일본의 기생충관리 현황(Dr. S. Hanyashi, 일본기생충예방회)

◎심포지움 II(좌장 : 김상인 인천길병원장)

1. 자궁암 검진 11년의 보고(이인성 건국대의대 교수)

2. 최근 10년간 한국의 B형 간염 표면항원 및 항체 양성률 추이(김진규 서울의대 교수)

3. 일본의 위 집단검진(Dr. S. Harashima, 일본예방의학협회 이사)

4. 한국건강관리협회 사업현황(한인수, 건협 조사연구 부장)

◎종합 토의

(화환·화분)

구니이 조지로(일본국 동경예방의학협회 이사장)/요꼬가와 무네오(일본 기생충예방회)/일본 보건회관/일본 예방의학사업중앙회/일본 나고야 공중의학연구소/일본 Fukuda 전자/김용완(대한가족계획협회장)/한용철(대한결핵협회장)/이창규(동강무역 대표이사)/장용택(신풍제약)/유진의료전자/동익양행/이혜근(충일화학)/한국에보트/김사홍(천일인쇄사장)

## 이순형 교수, 이홍량 사무국장 등에 훈·포장

창립 30주년 기념식서

건협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는 건협의 발전과 기생총관리, 건강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공이 큰 국내외 인사 및 협회 직원·유관기관 인사 등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이 시상식에서는 서울의대 이순형 학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일본기생충예방회 요꼬가와 무네오 이사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건협 광주·전남지부 이홍량 사무국장이 국민포장을 수여 받았으며, 그외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보사부장관 표창, 협회장 표창, 장기근속 표창 등 모두 122명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 ♣훈·포장

#### 국민훈장동백장

서울대학교 의대학장 이순형

#### 국민훈장목련장

일본기생충예방회 이사장 요꼬가와 무네오

#### 국민포장

건협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이홍량

### ♣대통령 표창

건협 조사연구부 부장 한인수

### ♣국무총리 표창

건협 부산직할시지부 사무국장 하성미

### ♣보사부장관 표창

건협본부 총무부 관리기사 김영환

건협본부 기획부 대리 신동구

건협본부 조연부 대리 정도선

건협본부 사업부 대리 변성식

건협 서울특별시지부 과장 이종남

건협 서울특별시지부 검사소장 이상연

건협 부산직할시지부 대리 조승진

건협 대구직할시지부 검사소장 이동춘

건협 인천직할시지부 대리 나서경

건협 강원도지부 검사소장 김선웅

건협 충청북도지부 과장 유창근

건협 대전·충남지부 사무국장 김치수

건협 대전·충남지부 대리 강명순

건협 대전·충남지부 대리 이정탁

건협 전라북도지부 대리 나은숙

건협 광주·전남지부 대리 이현숙

건협 광주·전남지부 대리 강완석

건협 경상북도지부 대리 이은채

건협 경상남도지부 대리 노태호

농협중앙회 공제부 과장 김정일

새마을금고연합회 계장 권오엽

부산교육청 학교보건과 보건계장 계규중

인천북구청 7급 김춘태

경기도보건과 보건계장 한중석

농협 강원도 공제회 과장대우 박덕용

충북 보사환경국 방역계장 김용준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중성

전라북도 교육청 보건계장 이중목

전라남도청 보건과장 엄광섭

경상북도 보건과 주사보 박영순

경남교육청 학교보건과 행정주사 김성한

제주교육청 학교보건과 보건주사 양정은

### ♣협회장 표창

건협본부 총무부 대리 문창섭, 한국과학기술원

복지과장 김홍식의 51명

### ♣장기근속 표창

20년 근속 본부 총무부 부장 성경웅 외 6명

10년 근속 본부 홍보부 과장 김장석 외 24명

### ♣우수지부 트로피

부산직할시지부, 경기도지부, 광주·전라남도지부

## 일본 예방의학신문 1면에 건협소개

구니이 조자로 이사장, 30주년 맞은 건협 회고



(재)동경예방의학협회가 매월 발행하는 예방의학 신문 10월호 1면에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소개되었다.

구니이 조자로 동경예방의학협회 이사

장은 회고 형식으로 쓴 이 사설에서, 지난 30년간의 기생충 및 건강관리 사업 전개 과정에서의 한일협력 과정을 회고하면서 “건협은 초창기 기생충 예방단체로 발족한 이후, 예방의학사상에 기초한 건강관리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왔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정부의 지도 하에서 전국시도의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건협사업은 ‘자립’을 근거로 한 한국민간단체의 건강증진운동으로서 국제적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도 한국건강관리사업 발전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평했다.

## 이근식 경남 부지사, 건협 경남지부 방문

국민건강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 당부

이근식 경상남도 부지사가 지난 11월 11일 건협 경남지부를 방문했다.

경남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는 이 부지사는 이날 경남지부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지부 검사시설을 돌아본 후, 우수한 검사시설이 설치된 것과 경남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협 직원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최신 기자재와 우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남도민 건강증진에 계속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서중 사무국장의 안내로 지부 검사소를 돌아보고 있는 이부지사(사진 왼쪽에서 두번째부터 남서중 사무국장, 이근식 부지사)

## 보다 적극적 건강관리 유도 위한

## 보건교육 되도록

'94. 보건교육 담당자 교육서 다짐



'94년도 보건교육담당자 교육이 지난 11월 16일부터 2박 3일간 경북 경주시 보문콘도에서 있었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일선 보건교육 담당자의 역할 제고와 보건교육 사례교육 등을 위해 개최된 이번 교육에는 시도 및 시군 보건소의 보건교육 담당자, 건협 지부 홍보과장, 보사부 관계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일선 보건 요원으로서 가져야 할 대민봉사자세, 주민 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 등 보건교육 담당자의 기본 자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사례 연구 발표 등 주민 보건교육 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하는 강의가 이루어졌다.

건협 임한중 회장과 전무근 사무총장

은 교육 개최사와 강평을 통해, 『앞으로의 국민건강관리는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예방을 통한 건강관리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보건교육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교육이, 이와 같은 보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새롭고 획기적인 방안을 공동모색하는 자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교육의 주제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 공직자로서의 대민 봉사 자세(예지 원 정옥희 지도위원장)
- 국민건강증진 시범보건소 운영 모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종화 연구위원)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부보건시책(보건사회부 이동모 보건국장)
- 주민보건계몽을 위한 일선 공무원의 역할(이화여대 건강교육학과 김초강 교수)
- AIDS 예방과 대책(경북의대 김재식 학장)
- 일선 보건교육 사례 발표(구미시 보건소 김진환 예방의약계장, 건협 대구지부 김수일 홍보과장)